

# 사회혁신포커스

Social Innovation Focus

시사적인 사회혁신 쟁점을 일상적으로 포착하고  
비평하는 주간 이슈페이퍼입니다

24호 2016.09.26

## 공동체의 심리학, 공동체는 가능한가?

심은정 • 사회혁신리서치랩 연구원

### 요약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하는 다양한 형태의 서울형 도시재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뿐만 아니라 마을 만들기, 문화예술 프로젝트, 전통시장 살리기, 마을기업, 경관사업 등 다양한 실천수단과 연계되어 수행될 필요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시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필수적인 조건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마을과 관계된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참여해야 한다.

이와 같이 주민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애착을 가지고 활동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을에 대한 만족도와 공동체의식이 높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의식은 어떤 활동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으로 하는 것을 좋은 가치로 여기는 인식이 아닌 구성원으로써 느끼는 느낌(Sense of Community)을 말한다.

본 글은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현재 일상의 삶에서 공동체의식이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던지고자 한다. 더불어 공동체의식에 대한 심리학적 근거를 가지고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주목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 '나는 어떤 공동체에 속해있을까?'

## 서울형 도시재생, 공동체를 복원하다.

최근 서울시가 제시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는 지형, 하천, 도로 등 물리적 환경 뿐만 아니라 도시의 맥락, 토지이용의 특성, 행정구역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울을 5개 권역(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으로 구분하고 이에 맞는 권역별 발전방향을 포함하고 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에는 해당 권역의 중심지 체계, 인구, 주거, 산업경제, 기반시설, 지역자산, 주민역량을 고려하여 권역별 재생과제를 설정하였다. 이는 어느 지역에 살든지 생활환경이 비슷한 조건이 되는 거주 환경을 만들어 주는 동시에 필요한 지역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육성, 도시경쟁력에 필요한 개발 사업을 조화시키는 접근방법과 함께 원주민을 보호하면서 커뮤니티를 유지하는 재개발 사업의 대안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하는 다양한 형태의 서울형 도시재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뿐만 아니라 마을 만들기, 문화예술 프로젝트, 전통시장 살리기, 마을기업, 경관사업 등 다양한 실천수단과 연계되어 수행될 필요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시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필수적인 조건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마을과 관계된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참여해야 한다.

이와 같이 주민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애착을 가지고 활동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을에 대한 만족도와 공동체의식이 높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의식은 어떤 활동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으로 하는 것을 좋은 가치로 여기는 인식이 아닌, 구성원으로써 느끼는 느낌(Sense of Community)을 말한다. 그렇다면, 공동체의식과 마을만들기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공동체의식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 고취되는 개념인가? 아니면 공동체의식이 높은 사람들이 마을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인가? 일련의 질문을 던지기 전에 제일 먼저 마음속에 질문을 던지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나의 마을은 어디인가?’

‘나는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나?’

## 무엇이 공동체에 참여하게 하는가?

**당신의 마을은 어디인가요?**

앞서 언급된 것처럼 서울에서 마을 만들기는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중요한 시정방향 중 하나이다. 하지만, 서울시에 살고 있는 시민 중 자신의 마을에 대해 쉽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당신의 마을은 어디인가요?’라는 질문에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한 20대 남성은 ‘강남구 역삼동’이라고 답했고, 지방에 살고 있는 한 30대 여성은 ‘마을이라는 표현도 쓰나요? 동 말하는 거예요?’라고 답했다. 두 사람의 대답으로 ‘마을’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인식을 일반화 시킬 수는 없지만, ‘마을’이라는 표현은 서울에서 뿐만 아니라 서울시보다 규모가 작은 지방도시에서도 여전히 익숙하지 않은 표현으로 보인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인식하고 있든 인식하지 않고 있든 공동체에 속해 있다. 앞서 말한 ‘마을’이라는 표현 자체에는 익숙지 않지만, 같은 개념을 ‘커뮤니티’로 환원시키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참여하고 있는 ‘커뮤니티’를 ‘마을’보다는 더 쉽게 떠올린다. 공동체의식이 가져오는 힘은 다양한 의미에서 대단하다. 아주 긍정적인 사례로는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도 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긴다. 사람들은 왜 공동체에 참여하게 되는가?

### 공동체의식 (Sense of Community)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속성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을’이든 ‘커뮤니티’든 소속된 조직이나 모임, 구성체를 가진다. 그렇다면, 무엇이 공동체를 존재하게 하는 것일까? 인간이 공동체를 구성하게 만드는 심리는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하는 한 연구가 있다. 사회심리학자인 맥밀런과 샤퍼(1986)는 지역 사회가 작동하는 방법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론 틀을 제공하였는데, 바로 ‘공동체의식(Sense of Community)’이라는 개념이다.

다양한 연구를 통해 공동체의식의 구성요소는 상호작용, 사회적 연계, 연대감, 소속감, 충족감, 자긍심, 유대감, 공동체에 대한 만족감, 장소의 정주성 등 다양하게 정의되었지만 크게 ▲구성원자격(Membership) ▲상호영향의식(Influence) ▲욕구충족통합(Integration and Fulfillment of Needs) ▲공유된 정서적 유대감 등 네 가지로 나뉜다. 각각의 요인이 공동체의식에 어떤 기여를 하는 바를 살펴보면, 공동체의 존재에 대한 심리학적 근거를 파악하고 구성원과 공동체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주는 첫 번째 요소는 구성원의 자격이다. 여기서 말하는 구성원 자격요인은 개인이 느끼는 소속감이나 사적인 유대감이다. 구성원 자격이 가지는

특성은 경계, 감정적 안정감, 소속감과 정체성, 개인적 투자, 공통의 상징적 체계 등이 포함된다. 이 같은 특성들은 공동체에 대한 경계를 만들고 스스로 높은 신뢰 구조 속에서 특별한 공동체를 구성하게 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의 도시 로고와 브랜드명이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상호영향의식인데, 이는 구성원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느낌과 공동체가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느낌을 서로 공유하는 상태를 말한다. 여기서 ‘영향’이란 무엇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주는 개념을 말한다. 맥밀란과 사비스는 상호영향에 대해 “다른 사람의 필요와 가치 그리고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일 영향력 있는 공동체이고, 반면, 다른 구성원을 지배하려고 시도하면서도 정작 구성원들의 요구나 의견을 무시하는 공동체는 제일 영향력이 없다”라고 명시했다.

이와 같이 구성원들이 어떤 일을 직면했을 때,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동체가 구성원에게 상호영향의식 즉, 구성원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다. 이는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누군가라도 있다는 것을 구성원들이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상호영향의식에는 공동체가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느낌도 필요하다. 이 때 공동체가 해야 할 것은 구성원들이 유지하고 싶어 하는 가치를 제공하는 방법이 있다. 구성원들이 잃고 싶지 않은 가치를 제공하고 유지시키는 것은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도록 만들 수 있다.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세 번째는 욕구충족통합이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공동체에 가입하여 구성원들이 각자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이 개념은 공동체가 구성원들의 시간과 기여를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를 강화시킨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동체가 구성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보상의 종류는 다양한데, 구체적으로는 질문에 대한 답이거나 네트워크가 될 수 있다. 혹은 구성원이 느낄 수 있는 소속감이나 지원 네트워크, 사려 깊은 대화, 영감 등과 같은 무형의 것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유된 정서적 유대감이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친다. 공유된 정서적 유대감이란 개념은 건강한 공동체는 모두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다시 말해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들이 함께 경험적 역사를 가지며, 앞으로도 함께 하는 경험을 더 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부여한다. 이러한 경험은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한다. 따라서 위기를 겪은 공동체는 어려운 상황들을 공유하고 구성원간의 강력한 정서적 연결로 위기를 극복하면서 더 강력한 공동체로 발전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된 정서적 유대감이란 이 요소는 진정한 공동체를 위한 결정적인 요인으로 고려된다.

## 이 시대의 공동체의식

글의 초반에도 언급했지만, 공동체의 힘은 대단하다. 아주 긍정적인 형태로 이해할 수 있는 공동체의 힘은 강한 공동체 의식이 만드는 사회적 자본이다. 여기서 사회적 자본은 제도적 형태이든 규범적 형태이든 관계없이 사회관계망이 사회안전망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경제적 풍요나 혹은 경제적 빈곤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과 상관없이 사회적 자본이 많으면 공동체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원봉사(Volunteerism)나 시민활동의 적극적인 참여, 또는 민관 협치 거버넌스도 사회적 자본의 생산물로 볼 수 있다. 이는 다시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공동체를 작동하게 하는 공동체의식은 여러 가지 요인에 영향을 받지만, 쉽게 측정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니다. 따라서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실제 나에게 얼마나 적용되는지 고민해 보는 것으로 지금 나의 공동체의식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

## 나의 공동체의식

공동체의식은 공동체 혹은 마을이라는 개념을 접해보지 못한 젊은 세대들에게는 더욱이 익숙하지 않다.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특별하게 두지 않는 이상, 일상을 살아내는 사람들에게 공동체는 어떤 의미일까?

먼저 구성원의 자격을 떠올려보자. 대부분 소속된 일터 혹은 학업의 공간에서 부여되는 구성원의 개념을 먼저 떠올린다. 개인적으로도 이 글을 쓰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회혁신리서치랩을 내가 속한 공동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서울이 본향이 아닌 경우는, 서울이라는 도시가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도시이자 기회의 도시이지, 가족이 있고 쉼이 있는 도시는 아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렇듯 일과 삶의 균형 보다는 일과 삶이 분리되어있는 삶에서 우리는 공동체를 얼마나 느낄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상호영향의식인데, 용어는 낯설지만, 쉽게 생각해 나도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받고 있는 그룹은 어디인가? 아주 개인적으로 맺어진 '친구' 혹은 '일하는 동료' 정도를 생각할지도 모른다.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국가가 나에게 해 주는 것이 별로 없으니, 내가 알아서 잘 살아야 한다.' 국가를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속해 있는 규모가 아주 큰 공동체라고 정의하면,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상호영향의식은 아주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육구충족의 면에서도 구성원들의 다양한 욕구가 모아지고 이것을 해결하거나 성취하기 위한 노력은 일상적인 삶에

서 찾아보기 어렵다. 시민단체에 속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개념은 어느 순간 일이자 삶이면서 무엇이 나의 욕구인지 파악하기 어려운데, 일반 시민들에게 이 작업은 대단히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공유된 정서적 유대감이라는 것을 느끼기는 더더욱 어렵다. 얼마 전, 마을 지원사업을 하시는 분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활동하고 있는 지역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은 아니라 했다. 일의 차원이라도 마을 지원 사업을 하다보면 거주지가 아니더라도 내 동네가 되는 것이냐고 물으니, 그의 대답을 아주 간단했다. ‘아니요, 일 하는 곳이 동네가 되나요? 그냥 인사하고 지내는 사이가 생기면 내 동네 같죠.’ 같은 맥락의 사소한 예로 아주 어린 시절, 아파트에 살긴 했어도 같은 라인에 사는 주민들과 인사하고 안부를 건네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웠던 것 같다. 하지만 지금은 승강기를 함께 타게 되거나 혹은 같은 층을 가게 되더라도 서로 경계하는 것이 일상적이며 자연스럽게 승강기에 표시되는 층수만 올려다보고 있게 된다.

### **마을 지원 사업만으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물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의 삶에서 공동체의식이라는 개념이 아주 비관적이라거나 이 시대에 공동체는 사라지고 있다고 단언 할 수는 없다. 지역에는 여전히 동네에 필요한 것을 논의하고 일을 도모하는 시니어모임도 있고, 학교 주변에서 등·하교 길을 책임지고 있는 교통안전지킴이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사람이 사는 곳임을 느끼기도 한다. 활발한 정보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서울시 홈페이지에만 들어가 보더라도 지역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 접할 수는 있지만,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거리가 멀다. 어쩌면, 현대 사회에 살고 있는 지금의 우리에게 공동체에 대한 고민을 할 시간조차 없을지도 모르겠다.

단순히 지역에서 신나게 놀아보는 일회성 사건으로는 공동체의식을 강화시킬 수 없다. 물리적, 사회적 변화를 위한 끊임없는 계획과 실천이 중요하다. 특히,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생겨나는 공동체의식은 절대적인 시간을 필요로 한다. 실제 지역 청년이자 공유공간기획자로 활동하는 그는 본인이 살았던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지역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모습을 기존에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 단체가 이해하기까지 1년이란 세월이 걸렸다고 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도 함께 일을 하면서 맞추어 간다고 했다.

우리는 바로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을’이라는 개념으로 사업이 모두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엮어가는 일이라는 점이다. 관계를 구축하는 작업은 공장에서 찍어낼 수 있는 생산품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지방자치단체가 계획하는

일의 성과는 지금 바로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공동체를 지원하는 사업이 단순히 마을에 무엇을 새롭게 만들어 내거나 마을에서 공동체가 하는 활동 평가를 기준으로만 이루어져서는 “지금”의 공동체의 “다음”은 준비되기 어려울 것이다. 마을 지원 사업을 할 때 필요한 프로그램들에 대한 더 깊은 고민과 공동체 평가 기준의 변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절대적인 인내가 어우러질 때, 지금 이 시대에도 ‘마을’이 생기고 ‘공동체’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김권수. 2014. 서울시의 도시재생사업이 주민의 마을만족도와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공공사회연구』 4(1): 66-92
- 박수현·김태영·여관현. 2013. 문화마을만들기에서의 공동체의식 형성요인 연구-성남시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5(5): 207-230
- Davidson, W. B. & Cotter, P.R. 1986. Measurement of sense of community within the sphere of cit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6: 771-791
- McMillan, D. W. & Chavis, D. M. 1986. Sense of Community: A definition and theor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 6-23

사회혁신리서치랩은 서울시로부터 서울혁신파크를 위탁 운영하는 서울혁신센터 산하 연구기관입니다.



“협치와 혁신”으로  
행복도시를 꿈꾸는  
서울시 사회혁신을 위해

사회혁신리서치랩은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의제개발과 해답을 제시합니다.

사회혁신리서치랩은  
시민과 함께 사회혁신 확산을 위한  
연구를 수행합니다.

Tel. 070-4771-0332  
Fax. 02-389-7514  
E-mail. soinnolab@gmail.com  
Web. soinnolab.net  
Facebook <http://www.facebook.com/seoulinnovationlab>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녹번동 5번지) 미래청(1동) 313호